

청지기 지도자: 리더십을 위한 성경적 모델

팀 켈러

청지기로서 기독교 리더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리더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리더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당연하다. 현대 리더십 모델과 이미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고 느끼는 역동성과 카리스마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는 리더십에 대한 주요 성경적 모델은 "청지기 리더"라고 믿는다. "청지기"는 통치자이자 노예였으며, 이 모델은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한다.

청지기로서의 리더의 성경적 비유

창조, 리더십 및 청지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권을 가지라"(창 1:26 KJV) 명령하셨다. 그들은 "...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창세 1:26, 28)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부름이기도 하지만 청지기 직분에 대한 부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지만(시 8:6),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와 함께"(시 24:1)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자원에 대한 권위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다. 그들은 만물을 관리해야 했으나 그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했다.

그러므로 경건한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자원의 책임감있는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재배(착취가 아니라)이다. 죄 많은 리더십은 특정 자원을 이기적으로(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고, 따라서 착취적으로(자원 자체를 경작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해를 끼치며) 사용한다.

신약에 나타난 리더십과 청지기십의 차원들

청지기 직분의 뜻은 신약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고대에 청지기는 큰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지만 사실 그 자신도 노예였다. 청지기는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오직 그 재산 주인의 의지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사용함이 가능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청지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42~48절에서 예수님은 청지기 또는 관리인(그리스어 *oikonomos*는 문자 그대로 "집의 통치자"를 의미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는 재산 전체, 즉 모든 일꾼과 자원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둘로스(43, 45-47절)라고 부르시기도 한다. 이 단어는 하인이거나 품꾼이 아니라 종, 주인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oikonomos]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만일 그 종[둘로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누가복음 12:42~46)

신약에서 청지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첫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종이다. 그의 통치권 중 어느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대표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만이 통치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둘째, 청지기는 통치자로서 자신 아래 있는 자원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킬 수 있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맡겨진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매장하는 두려워하는 청지기를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셨다(마 25:26).

청지기가 이기적으로나 착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면 주인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그의 권위를 제거해버리신다. “그를 산산조각 내”셨다는 놀라운 표현은 예수께서 확대하고 황포하는 리더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려 준다. 현대인은 노예와 권위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지기 모델에서는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사는 겸손한 노예만이 권위를 얻을 수 있다.

바울은 청지기를 모든 기독교 리더들의 명시적 모델로 사용한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청지기 직분”으로 묘사한다(oikonomian은 고린도전서 9:17에 나타남). 그는 또한 장로/주교를, “감독자”(episkopon)로 하나님의 “청지기”(oikonomon) (딤후 1:7)로 표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기독교 리더들에게 주신 자원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고린도전서 4:1 KJV -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oikonomous]들”)와 영적 은사(“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으니라” 벧전 4:10 NRSV)를 받았다.

궁극적인 청지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시며 그는 언약의 주인이시며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속력 있는 성약 관계에 살고 있으며 그분을 섬길 의무가 있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사항인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다. 그는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는 그를 통해 종으로서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는 통치자의 궁극적인 예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게 하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doulou). “그러므로”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빌 2:6-10).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그리스도(롬 1:1)와 다른 사람들(고후 4:5)의 겸손한 종이 되어야만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다.

청지기의 영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태어난다. 복음은 기독교 신자가 simul iustus et peccator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롭게 되고 받아들이지지만 여전히 죄가 작용하고 있는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현실은 온유하지만 용맹하며, 종이자 통치자여야 하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궁극적인 영적 자원이 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지도자의 성경적 은유

이 시점에서 우리 중 어떤이들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도 확실히 그렇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 특히 바울이 노예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대한 출처는 Murray J. Harris 의

기독교 리더십의 "청지기 리더" 모델에서 리더는 겸손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노예이고 자원을 경작하는 통치자이다. 기독교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 자신의 성령의 은사, 사회적 위치,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은사와 은총 등과 같은 자원을 경작하고 성장시키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다른 곳에서 많이 탐구되었다. 이 논문은 기독교 리더십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측면, 즉 리더가 영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을 살펴본다. 이 용어는 현대인의 귀에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거슬리기까지 하므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노예에 대한 신약에서의 은유는 영적 의미를 전달한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하인이나 고용된 남자와는 구별되는 "노예"를 의미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된다. 마리아는 "내가 여기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고 말한다. 바울(딤후 1:1)과 야고보(약 1:1)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며 베드로와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빌 1:1, 롬 1:1, 갈 1:10, 벧후 1:1, 유다 1).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고린도전서 7:22), 다른 그리스도인들(고후 4:5, 갈 5:13 참조),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고전 9:19)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는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종의 은유는 "노예"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서로 대할 때에 겸손을 앞치마 같이 입으라"(그리스어에서 파생됨)라고 말한다. 이 동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시각적이다. 이것은 소매가 하나뿐인 앞치마, 즉 노예가 일할 때 입는 앞치마를 말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익을 얻든 못 얻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다(요 13장). 예수님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의도적으로 종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었다(요 12:3 참조).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종들"이라고 부르셨다. 종(둘로스)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요 13:16).

현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은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Harris는 *doulos* 외에 다른 6개의 노예와 구별되는 하인이나 고용된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doulos*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작가는 노예, 주인이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주요 영어 성경 번역판은 둘로스를 "종"으로 번역하여 그 단어의 날카로운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들 "종"에 대해 "노예"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번역은 이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 번역에서 이 용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노예"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꺼려하는 데에는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Harris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종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 노예 무역(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세계의 일부에 남아 있다)은 이제 "노예제"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통제한다.

신약성경에 묘사된 노예제도는 그리스-로마제국의 노예제였다. 그것은 유대인 노예가 주인에게 소유되지 않던 구약의 계약관계의 종보다 더 가혹한 제도였지만 매우 복잡한 현상이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의 노예는 인종, 언어 또는 의복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고 살았으며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지 않았다. 노예는 종종 주인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경우 매우 높은 관리직분을 맡았다. 금전적인 면에서 노예들은 자유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가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팔 수 있었다(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집안의 노예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노예들은 스스로를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인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일부 노예는 다른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다. 평생 노예로 사는 자는 극소수였다. 대부분은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또는 늦어도 30대 후반에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합리적으로 희망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노예제도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균질하게 잔인했다. 그것은 인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노예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이 노예제도의 기본 방식은 1세기 노예 제도와 달리 '종신 노예'제도였다. 또한 전체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시작과 공급은 모두 납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약의 저자들은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지만 1세기 노예 제도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황을 현실로 취급한다. 그러나 성경은 납치를 통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한다(딤후 1:9-11, 딤후 1:9-11; 또한 신 24:7 참조).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1세기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 않은 반면, 후기 기독교인들은 어떤식으로든 성격적 가르침에 일치하지 못하는 신세계식 노예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주도한 이유 중 하나이다.

1세기 노예제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제가 시들고 점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바울은 정기적으로 기독교인 노예 소유주들에게 그들의 노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과 동등하며 형제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전 7:22-23; 빌레몬서 전체). 이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의 노예 제도를 매우 빠르게 침식시키고 약화시켰다.

이 주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비평가들은 단순히 성경이 끔찍한 노예 제도를 승인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예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약 은유의 의미

1세기 노예제도는 그 자체로 다양하고 현대판 노예제도와도 달랐다. 그렇다면 “노예”라는 단어 자체의 공통 핵심은 무엇인가? ‘노예’의 근본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하인이나 고용된 사람은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는 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봉사를 철회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 그들은 고용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그만 둘 수 있으며, 그것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직업 자체의 손실 외에는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면에 노예(모든 형태의 노예)는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봉사를 거부할 권리나 능력이 없다. 노예는 "그만둘" 수 없다. 주인과 그들의 관계는 계약적이지 않다. 노예의 순종은 절대적이다.

자, 이제 신약의 노예 제도에 대한 비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분명해졌다. 고린도전서 7장 21~23절의 매우 균형 잡힌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노예인가? 낙담하지 말라. 하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던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다소 역설적이지만 놀랍도록 참된 두 가지를 가르친다.

첫째, 우리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다. 바울에 따르면, 다른 인간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나쁜 상태이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예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전혀 지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노예 제도의 가혹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인간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절망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한다. 그들은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유인이다. 실제로 노예된 자들에게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자유를 사셨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법적 언어인 ‘면제’(해방)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정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롭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우리는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하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34, 36; 또한 로마서 6:14~23 참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롬 8:2) -4).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신다.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 시키시리라”(히 2:14-15).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10; 또한 고린도전서 7:23 참조)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심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찾았다. “그[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15).

바울은 인간의 노예제도가 나쁜 것만큼이나 더 깊은 종류의 노예제도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노예나 자유인 이거나 모두 이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를 갈기갈기 찢고 비인간화하고 착취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는- 진정한 노예 주인은 죄, 절망, 죄책감, 죽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둘째, 우리는 모든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서구인들은 인간 노예제의 대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한다(고후 5:15)!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노예의 또 다른 형태이다. 왜 그러한가?

자신의 자부심을 위해 사는 사람, 즉 자존감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아 주도적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자긍심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 즉시 자신의 우상, 즉 노예인 자신의 주인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의

노예이다. 성취나 성공의 방법으로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노동의 노예이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독립의 노예이다. Rebecca Manley Pippert(*Out of the Saltshaker and into the World: Evangelism as a Way of Life*, 2d ed)는 "우리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한다) 대조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소유권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통제가 아니다...그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가 당신의 의도한 모든 것이 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와 살아 있고 열정적인 혈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말하신다....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심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불완전하게 사는 것이다....[그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이 이시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의 노예라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자기, 자아, 우상, 마귀)의 종이거나 의(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대안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에 떨거나 통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또는 그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거부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왕이자 주인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우상이자 노예 주인이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죽거나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이 실패하면 그것은 평생 당신에게 벌을 줄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학대하지 않을 유일한 주인이시며, 당신이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라고 말한다.

노예에 대한 신약의 은유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무조건적인 노예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고 모욕적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의 피로 우리의 자유를 사셨고 그의 소유권의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전 6:18-20).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양과 목자, 자녀와 아버지, 노예와 주인, 백성과 왕 등)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은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은유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지만, 다른 은유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 특성 전체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노래 가사처럼 "달이 큰 피자 파이처럼 눈에 뜀다"는 말은 달이 피자처럼 둥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달은 피자처럼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 노예의 모든 특징(예: 강압, 두려움에 근거한 순응 등)에 적용되는 극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의 종들이 아닌 친구라 부르신다 (요한복음 15:15).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의 제자들을 노예로 부르신다(누가복음 17:10; 요한복음 13:13). 두 가지 은유(친구이자 종)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밀한 친구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그를 섬겨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무시하거나 공포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변성하여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갈 4:7,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상속자"다).

은유 적용하기

Murray Harris는 신약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놀라운 용어로 요약했다. "자유는 노예로 이어지고 노예는 자유로 이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진정한 노예가 아니라 심오한 해방이다. 고대 성공회 기도서를 인용하자면, 하나님[노예로써]을 섬기는 것은 “완벽한 자유”이다. 한 매우 인상적인 구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1:25, 2:12)이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됨)에 완전히 복종할 때에만 우리가 의도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하다고 말한다.

인간과의 관계를 협상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현대의 서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곤 하지만 실은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 비유가 필요할 수 있다! 왜?

공급업체와 소비자 간의 경제적 관계는 항상 매우 조건적이고 계약적이었다. 소비자는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 가능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한 공급자와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달랐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였다. 즉, 당신은 그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실함과 충성심에서 관계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관계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적이지 않으면서도 이어지는 이러한 유대와 우정 없이는 삶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사회 이론가들은 서구 문화에서 모든 인간 관계가 점점 더 조건적인 소비자-판매자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 관계로 이어진다.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많은 이들이 매우 조건적이다(보통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만족을 주시며 고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그들의 조건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의 뜨거움은 종종 매우 빨리 식거나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곤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신자들은 교회내 어떤 관계에서든 불편하거나 불만을 느끼면- 심지어 지루하고 영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종종 교회를 바꾸고 소속된 영적 공동체에서 빠져버린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서구적 사고방식에 대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생각해 보자. “음행을 멀리하라[포르네이아- 혼외 성관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8-20).

바울이 “혼외 성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는 “혼외 성관계를 가지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런 종류의 추론은 당신이 마치 판매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인 것처럼 ‘행위-의로움’, ‘값을 지불한 구원’, ‘소비자-판매자’ 관계를 가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장, 동업자, 혹은 말하자면 "고용주"이시며, 그가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 한 당신도 당신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값비싼 희생을 통해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위해 지어진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확보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신다. 고용주는 당신에게 지시를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순전한 은혜의 복음은 당신의 삶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께 포기하고 그분에 대한 당신의 순종에서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X를 얻으면 나는 주님께 순종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X)에게 더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부 복종은 아직 당신의 충성이 온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타인과의 관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다소 역설적인 말을 한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고린도후서 4:5)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라고 이야기 한다.

바울이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20~23)

바울은 비록 복음이 자신의 마음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과 문화적 편협함에서 자신을 해방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일종의 자의적인 노예 상태로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의 감수성과 감성에 제한하고 수용한다고 한다.

신약 학자 F. F. Bruce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요약한다. “그[바울]는 영적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해방의 속박조차 받지 않았다.” 바울은 “자유”롭게 되는 것의 종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독립을 포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자발적인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가?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소비자처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한 몸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만한 멋진 사람들인가? 좋은 사람들인가?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들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요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청지기로써 그를 섬기는 것은 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순종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예로는 요나를 들 수 있다. 그는 니느웨에 주의 명령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나 그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스스로 질문할 평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삶의 영역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종

복종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예로는 옴을 들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면 그가 보내시는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스스로 질문할 평가 질문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는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삶에 비극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것과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현명하고 구속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의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면 당신은 단순히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충성, 의리, 신뢰 및 사랑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예로는 이삭으로 인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평가 질문은 "나는 내 삶의 희망과 의미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분야에서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이다.

기대

예수가 주인이자 왕이시라면, 그는 큰 힘과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당신을 부르실 때에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위한 '자원'과 지원 없이 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예는 모세이다.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출 3),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스스로 다음과 같은 평가 질문을 해보라. "나는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에 너무 큰 문제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지기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경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자원을 겸손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Copyright © 2006 by Timothy Keller, © 2011 by Redeemer City to City. This article is adapted from a leadership training session at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2007.

We encourage you to use and share this material freely—but please don't charge money for it, change the wording, or remove the copyright information. redeemercitytocity.com | 9